

보과대 학회연합행사

2025 세계 보건의 날 행사

: 더욱 긴밀해진 보건과학대학 학회연합

매년 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로, 국민의 보건 의식을 고취하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 날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창립일에 맞추어 지정되었으며, 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보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는 보건과학 분야 학과의 소속 학회들이 연합하여 '세계 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기존의 치위생학과 학회(YESOSA), 물리치료학과 학회(PT Academy), 임상병리학과 학회(Neverdie), 작업치료학과 학회(OT Society)에 더해, 보건행정학과 학술 소모임인 국제보건정책연구회가 처음으로 참여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각 학회는 전공의 특성을 반영한 5개의 체험 구역을 운영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은 참가자에게 보건 지식을 전달하고 체험 활동 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치위생학과 학회 예소사(YESOSA)에서는 ‘구강건강 지식 퀴즈’, ‘칫솔질 교육’, ‘불소 소개’, ‘치아우식 활성 검사’를 주제로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행사 종료 후에는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간담회와 연합 회식이 이어졌으며, 참가한 학우들에게는 참가증이 전달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연합적인 방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세계 보건의 날 행사를 총괄한 치위생학과 학회 예소사의 송혜인 학회장은 “일부 기획했던 연합 이벤트를 실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지만, 간담회와 회식을 통해 학과 간 교류를 이어가며 연합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소사의 강민선 부학회장 또한 “전공 지식을 쉽게 풀어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느꼈고, 학생들이 질문에 답할 때 큰 보람을 느꼈다”며, “간담회를 통해 다른 학과의 활동도 공유하며 함께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가 더욱 뜻깊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 보건의 날 연합 행사에 처음으로 참여한 보건행정학부 학술 소모임 ‘국제보건정책연구회’의 황유찬 소모임장은 “처음으로 부스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보건행정학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학과에 대한 애정도 더욱 깊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